

‘공든 탑 무너질라’ 불안한 트럼프

고위급회담 연기 백악관 축각

美 언론 “북미 회담도 위협”

북한 의도·배경 파악 주력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자, 미국 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북한의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답화에서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축각을 곤두세웠다.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경고로 “트럼프 정부 관료들이 허를 찔렀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단지 미국을 위협하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인지 미 정부 관리들 사이에는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북미정상회담의 위협성이 부각됐다고 해석하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스터’를 구실 삼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허를 찔렀다”고 표현했다. CNN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라 마틱한 전개를 보였던 한반도의 대화 흐름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 제시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이 북한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은 아니었다



아내 입원 병원 찾은 트럼프 노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 원’ 편으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입원한 메릴랜드주 베서스다 윌트 리드 국립 군의료원에 도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양성 신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 이었으며 회복을 위해 당분간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지 7년 후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리비아식 모델에 극도로 반발해왔으며, 김 제1부상은 답화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제시한 볼턴 보좌관을 특별히 지목해 비난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협상패턴과 일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김 제1부상의 답화에 대해 “협상장을 떠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판도를 울리는 북한의 고정적인 대화 패턴과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종전에도 반복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위협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팀 슈워츠 CNN 베이징 지국장장은 “북한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암시가 북한을 격양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의 대화국면에서 대외적으로 유약하게 비쳐지는 것에 짜증이 날 수 있고, 북한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북한이 앞으로 모든 외교교를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동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완전 폐기에 동의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제1부상의 답화를 보면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듯 보인다. AP는 풀이했다.

AP는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취소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가장 큰 외교적 성취가 될 수 있었던 회담의 앞날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억만장자들 ‘부익부’...수익률 급등

2754명 9936조원 소유

세계 억만장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富)는 과연 얼마나 될까. 무려 9조2000억달러(약 9936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슈퍼리치 조사업체인 글로벌 자산컨설팅회사 웰스엑스(Wealth-X)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에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357

명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편입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 수가 14.9% 증가해 2754명에 이르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및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수익률 상승 덕이다. 억만장자들의 자산 가치가 “급속도로 개선됐다”는 게 웰스엑스의 분석이기도 하다.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수익률은 24% 급

등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8억 달러(1조 9400억원 상당) 증가했다. 상위 10명의 재산은 6600억 달러(712조 6600억원 상당)로 집계됐다. 아마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가 최고 부자였다. 지난해 한해 재산이 무려 342억 달러(36조9300억원 상당) 늘었다. 그의 전 재산은 이에 따라 1330억 달러(143조6500억원 상당)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최다였다. 미국은 억만장자 수가 680명으로 10% 증가했다. 여성 억만장자가 전체 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1.7%에 그쳤다. /연합뉴스



가자지구 긴박한 순간 15일(현지시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의 시위로 최소 60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고 2800여명이 다쳤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사진기가 최루가스로 고통받는 여성 시위자를 돕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 60명 사망 ‘가자지구 참극’ 국제사회 분노

이스라엘군, 미대사관 이전 항의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유혈참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15일(현지시간)까지 이를 연속 발포해 모두 60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

아랍권은 ‘대학살’, ‘전쟁범죄’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번 유혈사태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태도 때문에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은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 15일 안보리 긴급회의

를 소집했지만 관련국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만수르 유엔주재 대사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자행한 끔찍한 대학살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과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대니 다는 유엔주재 이스라엘대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접경지에서의 모든 희생은 하마스의 전쟁범죄 희생자이며, 모든 죽음은 하마스의 테러활동 결과”라면서 “시위가 아닌 폭동이였다”고 반박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쿠웨이트는 팔레스타인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초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UNHRC)는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어 가자지구 인권 악화 상황을 논의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회의 개최는 팔레스타인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26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맹(AL)도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스라엘군의 무력 사용을 ‘끔찍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폭력과 인명 손실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는 ‘두 개 국가 해법’으로 충돌을 종식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연합뉴스

길이 41·폭 10km짜리 감옥 BBC ‘가자지구의 삶’ 조명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극렬한 저항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철한 봉쇄 정책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조명했다.

190만명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서쪽의 가자지구는 동쪽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장하는 곳이다. 길이 41km, 폭 10km의 좁은 띠 모양인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서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상가원룸 매매 (신축)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전망최고!!
 월수익 700만, 보1억
▶ 매가 9억5천만 (용3억)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③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 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5백 월 33만
 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

① 상무지구 6층 상가(롯데마트 앞) 19평 (보5백 월33만) ▶ 매가가 7천만

② 월산동 3층상가건물, 무등시장 1분 (코너) 보1억4천 월900만 (용 1억) ▶ 매가 22억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22평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 송탄역, 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010-6670-9800

토지 매매

광산구 산정동 월곡시장 2분
53평 (코너)
원룸 건축 가능
상가 건축 가능
현 상가원룸 인허가 완료
(투자 가치 최상급)
▶ 매가 3억2천 (용 1억6천5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